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20분  
실시간온라인 (zoom+유튜브)

발제 1

대한민국 노년의 삶 들여다보기

: 조흥식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윤실 이사)

발제 2

능동적 노화와 교회의 역할

: 김규찬 교수 (강릉원주대 다문화학, 기윤실 좋은사회위원)

발제 3

연결과 존엄을 위한 노인의 돌봄 '주고받기'

: 신하영 교수 (세명대 교양대학,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발제 4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 최주리 간사 (기윤실)

대 담

대담 - 사회 : 이상민 본부장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 빌립보서 2:4-5





##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

---

**발행일** 2022년 8월 9일(화)

**발행인** 백종국

**편 집** 김현아 최주리

**발행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좋은사회운동본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02-794-6200 E-mail\_cemk@hanmail.net Homepage\_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순서 및 목차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 실시간온라인(Zoom+Youtube)

사회 : 이상민 본부장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시간	순서	쪽
19:30-19:35	포럼 취지 및 발제자 소개	
19:35-19:55	<b>[발제1] 한국 사회 노년의 삶 들여다보기</b> 조홍식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윤실 이사)	4쪽
19:55-20:10	<b>[발제2] 능동적 노화와 교회의 역할</b> 김규찬 교수 (강릉원주대 다문화학)	23쪽
20:10-20:25	<b>[발제3] 연결과 존엄을 위한 노인의 돌봄 '주고받기'</b> 신하영 교수 (세명대 교양대학)	28쪽
20:25-20:40	<b>[발제4]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b> 최주리 간사 (기윤실)	32쪽
20:40-21:10	대답	
21:10-21:20	마무리	

## 한국사회 노년의 삶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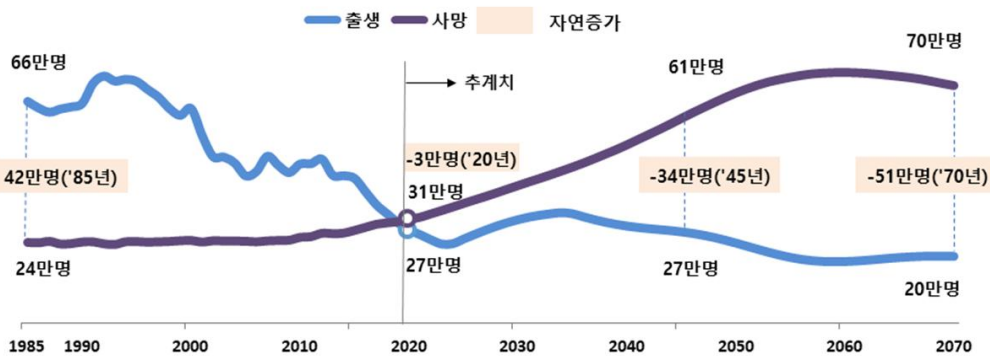
조홍식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윤실 이사, 서울대 명예교수)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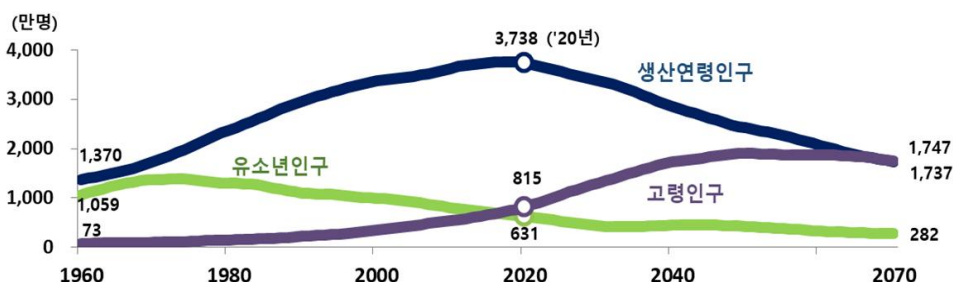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통계청(2021)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를 보면,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그림 1]에 있듯이, 인구의 자연증감(출생아수 - 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45년 -34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계속 자연감소가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1] 출생 · 사망 · 자연증가, 1985~2070년



한편, 2020년과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규모와 구성비를 보면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명(총인구의 12.2%)에서 2070년 282만명으로 2020년 대비 총인구 7.5% 수준으로 감소하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 2030년 3,381만명, 2070년 1,737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그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 2030년 1,306만명, 2070년 1,747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며, 그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0년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현재 급속한 인구 노령화의 속도가 가파르며,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수를 뜻하는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인인구 규모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현재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 비율을 말하는 노령화율은 16.6%,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57만 1천 명이며, 2025년에는 고령화율 20.6%, 노인인구 수 1,058만 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에서 2025년 84.7세로 증가하게 된다(통계청, 2021).

물론 이와 같은 추계는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감 추세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향후 국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럼에도 저출생-고령이라는 현재의 급속한 인구변화는 길어진 노년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안정된 생활 및 가치 있는 노년기의 삶을 살게 하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와, 지속가능한 자원 유지라는 결코 쉽지 않는 숙제를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년의 삶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이를 위해서 노인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경제상태, 건강 및 기능상태,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 삶의 주요 영역별 심층적인 변화 양상과 그 밑바닥에 깔린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복지정책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노년의 삶 실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물론 이 때 중요시 제기되는 개념은 삶의 실태를 ‘삶의 질’ 개념을 사용하여 삶의 질 실태로 등치하는 경우가 20세기 말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은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물론 ‘삶의 질’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닌, 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 발전수준과 구성원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내용에 따라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유사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 노년의 삶, 즉 노인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을 삶의 질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 밑바닥에 깔린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노인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 함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노년의 삶 실태 분석

한국에서 노년의 삶 실태를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1994년 첫 조사 당시에는 명칭이 지금의 ‘노인실태조사’가 아니라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였으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횡단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비정기적으로 1998년과 2004년에 두 차례 동일 명칭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만 6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8년 조사부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조사가 되면서 명칭이 ‘노인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이 확대되었다. 법정조사 이전 조사대상은 약 2천 명~3천 명으로 전국단위 통계만 산출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이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조사에서 조사대상은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 및 시·도 통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비정기적 조사에서 정기적 조사로 변경되었다. 2008년 이후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단위 정기 조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2020년 조사에서는 전체 영역을 가구 일반사항 외에 크게 9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경제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가족 간 도움의 교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기능상태와 요양, 인지기능,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과 노후생활이다(이윤경 외, 2020).

특히 2020년 노인실태조사는 코로나-19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문항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양상과 3년간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변화가 함께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2023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삶의 변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년의 삶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에서 노년과 관련된 국민 삶의 지표를 참고하는 게 좋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성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는 5월에 조사하여 그해 11월 공표),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다(예, 범죄피해실태조사는 조사 후 2년 뒤 공표).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12월 말에 업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1년 동안 통계가 공표되어 업데이트된 지표는 71개 중 53개이다. 2년 이상의 주기 지표 중 18개 지표는 2021년에는 통계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작년 보고서와 동일한 수치로 작성되었다. 또한 지표별로 공표시점이 달라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1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71개 지표 중 10개(14.1%)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표는 2020년(56개, 78.9%) 통계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1개 영역(가족공동체, 건강,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42개(59.2%), 주관적 지표는 29개(40.8%)이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방향 지표(+)와 부정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두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를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변화, 건강상태 변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기능상태 및 돌봄자원 변화, 경제활동 및 여가중심 사회참여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 사회에서 출생시기별 노인의 삶 양상

인간 개개인의 삶은 생애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돼 간다는 점에서 현재 노인의 삶의 양상은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의 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연령집단을 출생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상황과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현재 그들의 삶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는 2020년부터 65세 노인인구로 진입하며 2028년에는 전체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 교육을 받았고, 1970~1980년대의 경제발전 시기에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수급 대상자로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시작한 세대로서 출생 코호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 현재 1955년 이전에 태어난 1950년대 출생 코호트는 출생 시점에 따라 한국전쟁의 경험 여부가 다르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후까지 유소년기를 거친 세대이다. 어릴 때 전쟁 후 교육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청년기를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중심 세대를 경험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청장년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 세대는 중장년층때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에서는 출생 코호트가 동일하더라도 개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그래도 다행히 이들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된 노인복지정책의 혜택을 노년기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세대이다. 또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포함된 세대들로 이들의 노년층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노인집단 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신노년층'으로 불린다(김세진 외, 2021).

194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20년 현재 70대 노인으로 유소년기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지낸 세대이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 차원에서 1946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1930년대 이전 출생 코호트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청장년 시기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활성화한 1960년대~1980년대 경제성장기를 보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시점에 50대 후반을 보내면서 대량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연금 도입 시점에 노년세대로 진입함으로써 이전 1930년대 출생 코호트에 비해 복지급여 등으로 경제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은 줄어든 세대이다.

1930년대 이전 출생자(~1939년 출생자)는 2020년 현재 80세 이상 된 노인으로서 유소년기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보내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부흥기에 경제활동을 핵심적으로 한 세대이다. 청장년층 때 1960년대 국가의 빈곤을 경험했고, 중장년층을 1970~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 보냈으며, 노년기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경제위기를 당했다. 또한 이들은 노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 이전, 즉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확대되기 이전에 노년기에 진입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준도 낮았다. 아울러 IMF 경제위기 이후 가족경제 상태의 어려움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 인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부양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양 공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 돌봄 욕구가 높아지는 80세에 이르러 권리로서의 사회적 돌봄을 받게 되었다.

## 2) 노년의 연령별 삶의 일반 특성 변화

노년의 연령에 따른 삶의 제 특성별 구성비의 시계열 변화((김세진 외, 2021)를 살펴보면 첫째, 거주지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부(농촌) 거주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둘째,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의 구성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두드러진다. 셋째, 학력 분포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다. 모든 연도에서 74세 이하의 경우 초졸의 비율이 가장 높고, 75세 이상은 무학의 비율이 가장 높다. 넷째,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85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 가구는 65~74세, 독거가구는 75~84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경제상태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제1오분위~제2오분위의 비율이 높다. 여섯째, 건강상태의 경우 고연령 집단에서 기능상태 제한자의 비율이 높으며,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연령 노인의 제 특성이 저연령 노인에 비해 취약하게 나타나며 이 같은 경향이 시계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3) 노년의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변화

### (1) 소득 수준과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여기서는 우선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소득분위별 노인의 평균 월 소득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에 노인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불평등은 집단의 소득분포상 소득계층별 격차를 나타내

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배율,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있다.

여기서는 노인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집단 내부에서의 연도별 소득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분석 대상 내 소득집단을 구분하여 10분위 배율(10분위 배율=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최하위 10%의 평균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P90/P10), 그리고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면서 통계청에서 2019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팔마비율(Palma ratio)을 산출한 김세진 외(2021) 연구보고서 결과를 인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은 소득 집단을 10개로 구분하였을 때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값의 변동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소득분배 개선이나 악화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만약 소득 최하위 10%의 소득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그 집단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는 것보다 소득 최하위 10%와 그다음 소득 하위 11~20%의 경계값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위값(median)인 P50과 소득 최상위 10% 경계값인 P90, 그리고 중위값인 P50과 소득 최하위 10% 경계값인 P10을 비교하는 비율을 산출해 보는 것이다.

또한 Alex Cobham과 Andy Sumner가 2013년에 제안한 팔마비율이다. 이 두 사람은 Palma(2011)가 135개국 소득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최하위 소득층과 최상위 소득층 사이에 중산층(소득 5~9분위)이 항상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라는 것은 전체 소득 대비 최상위 10%와 최하위 40% 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팔마비율을 제안하였다. 소득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가 많이 사용되지만 팔마비율은 지니계수와는 다르게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상위 소득 집단의 집중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지니계수의 변화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구체적인 팔마비율(팔마비율=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 점유비/소득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비)은 그 값이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그 값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소득분위별 노인의 평균 월 소득 변화(김세진 외, 2021)를 살펴보면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꾸준히 소득분위별 노인의 평균 월 소득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분위 월 평균 소득이 8만 1,800원이었던 것이 2014년 8만, 7천3백원, 2017년 13만 1백원, 2020년 16만 9백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버는 10분위 월 평균소득은 2011년 259만원, 2014년 308만 9,300원, 2017년 350만 4,600원, 2020년 506만 2,700원으로 1분위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표 1]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소득분위별 노인 개인의 평균 월 소득 변화 (단위:만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	'11년 조사	'14년 조사	'17년 조사	'20년 조사
1분위	8.18	8.73	13.01	16.09
2분위	16.14	18.47	28.02	31.01
3분위	24.18	27.88	40.33	41.06
4분위	32.91	36.33	51.71	52.70
5분위	41.41	44.56	62.48	66.30
6분위	51.35	54.60	74.28	83.99
7분위	63.92	68.85	92.03	114.61
8분위	86.40	94.19	120.95	164.84
9분위	126.60	138.14	174.48	223.59
10분위	259.00	308.93	350.46	506.27
전체	70.77	79.94	100.73	129.80

주: 원자료 재분석함. 각 연도별 노인실태조사상 조사 대상 노인들만을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한 결과임.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360



다음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2]에 잘 나와 있다. 10분위 배율은 조사 연도별로 등락이 있어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최하위 10%의 평균 소득에 비해 최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대략 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팔마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노인실태조사까지는 팔마비율이 높아져 노인 집단 내 소득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 2014년 노인실태조사 기간부터 2017년 노인실태조사 기간 사이 동안은 팔마비율이 낮아져 노인 집단 내 소득격차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팔마비율이 다시 높아져 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세진 외, 2021).

[표 2]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단위: 배)

구분	'11년 조사	'14년 조사	'17년 조사	'20년 조사
10분위 배율	30.41	33.61	26.09	30.38
P50/P10	3.65	3.55	3.07	2.97
P90/P50	3.50	3.56	3.19	3.53
최상위 10% 소득 점유비	0.30	0.35	0.31	0.36
하위 40% 소득 점유비	0.13	0.12	0.14	0.11
팔마비율(Palma ratio)	2.33	2.84	2.13	3.12

주: 원자료 재분석함. 각 연도별 노인실태조사상 조사 대상 노인들만을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한 결과임.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361.

## (2) 노인의 개인 월 소득 및 소득원천 비중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노인의 개인 월 소득 및 소득원천 비중은 [표 3]에 잘 나와 있다.

[표 3] 노인실태조사 연도별 노인의 개인 월 소득 및 소득원천 비중의 변화

(단위: 만원, %)

조사 연도 <sup>1)</sup>	개인 월소득 <sup>3)</sup>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사적 연금	기타 소득	총 소득 <sup>4)</sup>
	연도별 명목 가치 <sup>2)</sup>	2020년 기준 실질 가치 <sup>2)</sup> GDP 디플레이터 이용	2020년 기준 실질 가치 <sup>2)</sup> 소비자 물가지수 이용								
2004년 조사 (2003년)	49.4	65.41	70.72	15.4	14.1	19.3	21.6	26.2	0.2	3.1	100
2008년 조사 (2007년)	68.9	85.64 (30.93%)	88.36 (24.94%)	14.9	22.4	15.3	20.5	26.6	0.4	-	100
2011년 조사 (2010년)	70.8	80.34 (-6.20%)	81.94 (-7.27%)	10.2	18.1	15.4	29.8	24.4	0.4	1.6	100
2014년 조사 (2013년)	79.9	87.60 (9.04%)	85.95 (4.90%)	10.2	12.1	9.2	28.0	19.1	0.4	1.1	100
2017년 조사 (2016년)	100.7	103.94 (18.66%)	105.17 (22.36%)	12.9	13.3	11.9	38.7	21.4	0.8	1.2	100
2020년 조사 (2019년)	129.8	131.50 (26.51%)	130.51 (24.09%)	24.1	17.2	11.0	27.5	13.9	6.3	0.0	100

주: 1) 각 연도의 노인실태조사는 전년도 소득을 조사하였기에 소득 기준 시점을 표기함.  
2) 명목 가치는 개인 가중치 사용하여 각 연도별 월평균 소득 산출. 실질 가치는 실제 소득 기준 시점에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기준 가치로 환산.  
3) 이전 조사 결과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4) 개인 가중치를 사용하여 월평균 소득 산출. 단, 평균 계산 시 결측치를 포함한 특성별 대상 집단 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득원천별 비중의 총합은 100%가 됨.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374.

첫째, 연도별 월 소득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20년 기준 실질 가치로 환산한 결과 2011년은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2011년 조사 이후 매 조사마다 개인 월소득 증가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증가속도는 가속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공·사적연금 수급의 충분성을 소득원천별 비중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인 소득의 소득원천별 비중은 2011년 조사시점부터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적연금의 비중이 타 연도에 비해 급증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당 조사에서는 70세 미만 연령군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로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나, 베이비부머 직전 세대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초연금 금액 상향조정(2014년 20만원→2018년 25만원→2019년 30만원)과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발생 등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2020년 단년도의 결과이기에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세진 외, 2021).

### (3) 노인 빈곤율 변화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로 구분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로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생산된 통계청의 ‘한눈에 알아보는 나라지표(e-나라지표)’ 코너에 공개된 2020년 기준 통계청(2021)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수시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 38.9%로 집계됐다([표 4] 참조). 이는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그간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전히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표 4]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시장소득	60.3	61.3	62.5	63.2	65.5	-	-	-	-
	처분가능소득	47.2	48.1	47.4	44.8	46.5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55.4	55.7	55.9	56.6	57.5	56.7	58.5	59.0	58.6
	처분가능소득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38.9

자료: 통계청(2021),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 (4) 소비생활 만족도 변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보면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보면 소비생활 만족도는 19~29세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데 19~29세가 22.6%이고, 50~59세가 19.9%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60세 이상에서는 12.7%로 낮아진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30~5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연령별 차이가 줄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소비생활 만족도 증가정도가 크지 않아 60대 미만 연령대와의 차이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2011년, 2019년, 2021년 연령별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국민 삶의 질 2021, p.64.

#### 4) 건강상태 변화

##### (1) 주관적 건강 상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 5]에 있듯이, 노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건강하다’부터 ‘건강이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 또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2008년 24.4%에서, 2020년 49.4%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세부 특성별로는 모든 조사 연도에 걸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도시) 거주 노인 대비 읍·면부(농촌) 거주 노인에게서,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에게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 응답률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 독거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 대비 노인부부 가구에서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세진 외, 2021).

[표 5] 건강(+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2008~2020년)

(단위: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24.4	34.2	32.4	37.0	49.4
지역					
동부	26.8	35.3	33.1	37.1	50.9
읍·면부	19.8	31.8	30.0	36.8	44.4
성별					
남성	35.4	44.0	42.0	45.3	55.4
여성	17.0	26.7	25.5	30.8	44.8
연령					
65~69세	31.6	43.4	42.6	46.2	68.7
70~74세	23.8	33.9	32.3	37.4	53.2
75~79세	17.1	27.3	25.3	31.0	37.4
80~84세	14.9	26.7	22.6	26.7	26.9
85세 이상	19.1	28.7	24.8	29.9	24.8
출생연도					
1950~1955년	-	-	-	48.8	67.6
1940~1949년	32.0	41.4	37.8	38.3	42.8
1930~1939년	22.7	29.0	24.3	28.3	26.7
1920~1929년	16.6	27.9	24.3	32.4	17.3
1919년 이전	19.9	32.6	46.9	0.0	
교육수준					
무학	13.1	24.7	20.2	23.2	21.8
초졸	23.0	30.8	28.7	33.9	37.2
중졸	31.3	39.7	39.4	41.0	52.4
고졸	37.5	46.9	45.3	47.7	65.4
전문대학 이상	55.9	60.7	55.5	60.5	7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8	27.4	24.3	29.2	38.6
노인부부	27.7	36.5	36.5	41.1	55.1
자녀동거	26.1	34.5	32.0	35.7	43.4
기타	22.3	36.8	36.8	40.7	4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6.3	27.5	24.8	28.5	37.6
배우자 있음	28.9	37.4	37.1	41.8	55.0

주: 1)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하였으며, 샘플 가중치 적용 및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2004년에는 관련 문항이 조사되지 않아 표 내용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152.

## (2) 만성질환

2004년 이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가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조사 연도별로 약 30여 개의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조사되었다. 그 30여개 질환 가운데 매 조사 시에 모두 포함되고, 고령층에서 높은 유병률과 사망위험이 높아 5대 주요 질환으로 여겨지는 고혈압, 당뇨병, 암, 폐질환, 그리고 관절염 등 5개의 만성질환 중 2개 이상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가 아래 [표 6]에 잘 나와 있다(김세진 외, 2021).

[표 6] 만성질환(의사진단 기준) 2개 이상 응답자 비율(2004~2020년)

(단위: %)

구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27.4	27.7	36.7	36.6	37.8	27.4
지역						
동부	28.1	28.2	36.7	36.5	37.3	27.3
읍·면부	26.6	26.8	36.7	37.0	39.0	27.9
성별						
남성	17.3	19.4	26.9	28.4	28.8	24.0
여성	33.8	33.3	44.2	42.5	44.5	30.0
연령						
65~69세	25.8	24.0	30.0	30.2	30.4	18.3
70~74세	30.6	29.9	38.8	38.0	37.9	26.4
75~79세	30.5	32.1	40.9	41.3	43.3	33.4
80~84세	24.7	31.7	41.7	41.8	44.9	34.5
85세 이상	18.1	21.7	34.7	37.5	40.8	40.6
출생연도						
1950~1955년					28.4	19.2
1940~1949년		23.7	32.1	33.8	36.9	30.6
1930~1939년	27.9	29.6	40.6	41.5	44.2	36.4
1920~1929년	28.4	30.6	38.8	37.6	41.1	39.9
1919년 이전	18.2	14.9	27.3	33.7	51.8	39.8
교육수준						
무학	29.0	31.9	45.2	44.7	50.1	41.6
초졸	30.1	28.3	36.6	36.9	39.1	33.1
중졸	22.8	23.6	32.1	35.0	32.1	26.0
고졸	18.8	23.7	27.5	28.0	30.2	17.9
전문대학 이상	17.7	17.0	24.3	25.0	22.8	22.8
가구형태						
노인독거	32.9	35.2	45.9	45.1	46.1	31.8
노인부부	23.2	24.4	33.7	32.1	33.7	24.8
자녀동거	26.8	28.3	35.5	37.1	37.7	30.4
기타	37.4	26.3	36.5	35.0	38.7	29.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1.2	34.4	44.3	44.6	45.4	33.3
배우자 있음	24.4	24.1	33.0	31.6	33.4	24.5

주: 1) 샘플 가중치 적용값이며(단, 2004년 제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161.

2개 이상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04년 27.4%, 2017년 37.8%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9.0%p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7.4%로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변화 추세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 대비 여성 노인의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전체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과 관절염에서 여성 노인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는 80~84세 연령 구간까지 유병률이 증가하다가 85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고연령 집단일수록 복합만성질환자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생연도 별 경향을 보면 조사 연도 초기에는 1920년 또는 1930년대 출생자의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7, 2020년 조사에서는 1920년대 또는 1919년 이전 출생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또는 초졸 노인의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끝으로 부부 또는 자녀 동거 대비 독거노인, 유배우자 대비 무배우자 노인의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노인 자살률과 고독사의 증가

최근 5년간 연령별 자살률은 [표 7]에 있듯이, 8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2017~2018년에는 50대의 자살률이 60대보다 약간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6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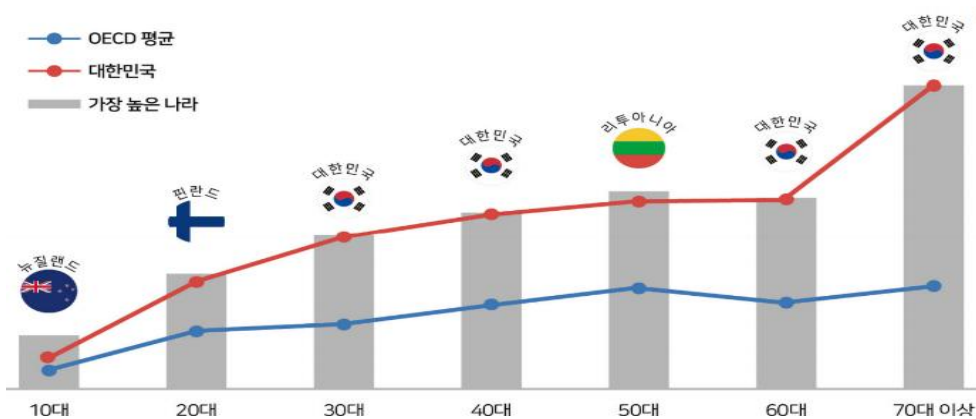
[표 7] 2015~2019년 연령대별 자살 현황 추이(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연령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9세 이하	0	0.0	0	0.0	1	0.0	1	0.0	2	0.0
10대	245	4.2	273	4.9	254	4.7	300	5.8	298	5.9
20대	1,087	16.4	1,097	16.4	1,106	16.4	1,192	17.6	1,306	19.2
30대	1,926	25.1	1,857	24.6	1,812	24.5	1,998	27.5	1,914	26.9
40대	2,624	29.9	2,579	29.6	2,408	27.9	2,676	31.5	2,588	31.0
50대	2,795	34.3	2,677	32.5	2,568	30.8	2,812	33.4	2,837	33.3
60대	1,778	36.9	1,783	34.6	1,641	30.2	1,880	32.9	2,035	33.7
70대	1,957	62.5	1,715	54.0	1,598	48.8	1,664	48.9	1,620	46.2
80세 이상	1,098	83.7	1,111	78.1	1,073	70.0	1,147	69.8	1,193	67.4
미상	3	-	0	-	2	-	0	-	6	-
전체	13,513	26.5	13,092	25.6	12,463	24.3	13,670	26.6	13,799	26.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2021 자살예방백서, p.47.

WHO의 2021 Mortality date base를 활용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산출한 자료(2021)를 보면 아래 [그림 4]에 나와 있듯이, 한국은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아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 할 수 있다.

[그림 4]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2021 자살예방백서, p.2.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는데,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빈곤까지 겹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고독사 중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0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이었다.

###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시계열별로 심층 분석한 김세진 외(2021)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 [표 8]에 잘 나와 있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단독가구 증가가 고착화되어 노인 혼자 살아간다든지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계망 규모와도 결부되어 자녀수는 2008년 4.0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동년배로서 형제자매 또는 친구 및 이웃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3.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시계열적 변화(종합)

구분	시계열적 변화 주요 특성
구조적 측면	(가족구조) 노인 단독가구 증가, 자녀동거 가구 감소 (관계망 규모) 자녀 수 감소('08년 4.0명 → '20년 3.0명)
기능적 측면	(접촉실태) 연락 중심 교류로 변화, 전반적인 접촉 빈도 감소 (지원교환) 배우자- 상호호혜적 지원 자녀-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지원 방향성 상이
가치관 측면	(단독가구) 노인 자립적 요인에 따른 단독가구 형성 가치관 증가 (자녀동거 가구) 규범적 요인에 따른 동거 가구 형성 가치관 감소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139.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는 접촉방법과 접촉빈도의 시계열적 변화가 발견된다. 접촉방법을 보면 관계망 유형과 관계없이 왕래보다는 연락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촉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연락수단의 다양화 및 보편화, 그리고 신규 노인집단(195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 진입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최근 시점에 나타난 교류빈도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자리 잡을지는 추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기능적 차원의 또 다른 측면으로 가족 내 지원 교환의 경우 관계망 유형에 따른 특성이 발견된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시계열적으로 상호 호혜적 양상이 유지되나,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구적 지원은 여성 노인의 제공률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수발지원 및 경제적 지원은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순으로 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비교적 상호호혜적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셋째, 가치관 측면과 관련하여 가구형성 이유는 노인-자녀 간 역동에 따라 시점별 차이가 있다. 노인의 자립성 강화로 단독가구를 형성한다는 응답은 최근(2020년) 들어 약 2/3가 해당하는 등 증가 추이가 뚜렷하긴 하나, 이전 조사에서는 자녀의 별거 희망 또는 자녀 결혼에 따른 분가가 높은 응답을 차지하는 등 노인과 자녀 간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시계열적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 2008년 윤리 규범적 요인에 의해 기혼자녀와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약 1/2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김세진 외(2021) 연구결과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집단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을 시계열로 비교했을 때,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다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표 9] 참조). 첫째, 두 시점 모두 동년배(형제자매 또는 친구 및 이웃)와의 교류를 이어가는 유형이 도출되었다. 배우자의 부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상호보완적 책략으로써(이현주, 정은희, 2021) 동년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2020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관계망 유형이 보다 세분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단, 관계망의 크기와 교류 빈도가 항상 정적인 관계로만 발현되지는 않는다. 즉, 관계망은 다각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교류를 맺거나(집단 4), 협소한 관계망을 지녔지만 다각적인 왕래를 이어가는 등(집단 2) 개인 성향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합적 유형이 발견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및 이웃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가는 유형들(집단 1, 3, 5, 6)이 더 다각화된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이들이 중추적인 관계망으로써 기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9] 사회적 관계망 유형 및 유형의 특성(종합)

① 무배우자 집단

구분	관계망 크기			관계망 교류 빈도	일반 특성 <sup>①</sup>	
	자녀	형제 지매	친구			
2011년	집단1	+	++	+++	동년배 연락형	여성, 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집단2	+++	+++	+++	자녀&친구 왕래형	여성, 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집단3	++	+	+	친족 연락형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2020년	집단1	+++	+++	+++	친구 교류형	여성, 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집단2	+	+	+	다층 왕래형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집단3	++	++	+++	(제한적) 친구 왕래형	여성, 전기 노인, 고학력, 저소득
	집단4	++	++	++	소극적 교류형	여성, 후기 노인, 저소득
	집단5	++	++	++	다층 왕래 + 친구 교류형	여성,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집단6	+++	+++	+++	동년배 교류형	여성, 초고령 노인, 기능제한, 저소득

② 유배우자 집단

구분	관계망 크기			관계망 교류 빈도	일반 특성 <sup>①</sup>	
	자녀	형제 지매	친구			
2011년	집단1	+	++	+++	동년배 교류형	전기 노인, 저학력, 고소득
	집단2	+++	++	+	친족 연락형	남성,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집단3	++	+	+	다층 연락형	남성,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집단4	+	++	+++	친구 연락형	전기 노인, 저학력, 복합질환
	집단5	+++	+++	++	자녀&친구 왕래형	남성, 후기 노인, 저학력, 기능제한
2020년	집단1	+	+	++	친족 왕래형	동부 지역
	집단2	+	++	+	다층 왕래형(++) <sup>②</sup>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집단3	+++	++	+++	친구 왕래형	후기 노인, 저학력, 기능제한, 저소득
	집단4	++	++	++	다층 왕래형(+) <sup>③</sup>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건강 양호

주: 1) 분석 연도를 중심으로 관계망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 ++, +++로 구분함. 단 2011년도와 2020년도의 관계망 크기(+, ++, +++ )와 그 상대적 의미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함.  
 2) 일반 특성 중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함.  
 3) 집단 2와 집단 4 모두 다양한 관계망에서 왕래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특성을 보이나, 적극성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139.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의 경우 교류형태(왕래 또는 연락)는 시계열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망과 교류를 이어가는 유형(다층 연락/왕래형), 친족 또는 친구와 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유형들이 2011년과 2020년에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2011년에 비해 2020년에는 관계망 유형이 비교적 단순화되었으며, 왕래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시계열 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측면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왕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대면을 통한 교류가 노인 본인 또는 관계망과의 역동 하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도출된 사회적 관계망 유형들과 일반적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전반기 노인의 경우 동년배(2011년) 또는 다양한 관계망(2020년)과 교류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후반기 노인의 경우, 자녀 또는 친구와 같이 특정 관계망과 제한적으로 교류하거나 소극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관계망 축소를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유태균, 반정호, 2012; 김미령, 2006)와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화된 관계망 축소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잘 펼쳐야 할 것이다(김세진 외, 2021).

한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역기능의 하나로 노인학대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20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증가(16,071건에서 16,973건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12,009건, 2017년 13,309건, 2018년 15,482건과 비교하더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80대가 30.5%, 60대가 19.8%, 90대가 6.0%, 100세 이상이 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20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2,034명(30.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50대가 1,634명(24.4%), 40대가 1,352명(2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20년 5,505건(88.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대행위자 유형(2020년)을 보면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의 순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대비 7.2% 증가(486건에서 52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오히려 2019년 대비 29.8% 감소(131건에서 92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방임 등의 학대유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증가율은 24.8%, 정서적 학대 증가율은 20.9%로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는 2019년 대비 약 32.7% 증가(18,135회에서 24,057회로 증가) 하였다.

## 6) 기능상태 및 돌봄자원 변화

노인실태조사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의 기능상태 및 돌봄자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세진 외(2021)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신체 기능상태 변화를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8~2020년간 시간 경과에 따라 ADL은 분석기간 동안 완전자립 비율이 9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IADL의 완전자립 비율은 8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무학 및 초졸 이하의 저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 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치매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017년, 2020년 세 시점 모두 2% 내외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일반특성 구분에 따라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노인 일반특성별 신체 기능상태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며, 신체·인지 기능상태 저하의 위험에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의 돌봄자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돌봄 수급률, 주요 돌봄제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률 등 급 현황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돌봄 수급률 변화는 2008~2020년 동안 ‘증가 후 감소’ 추이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점별 표본의 특성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29.5%)과 2020년(55.0%)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돌봄 수급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노인, 도시지역(동부) 거주 노인, 초고령 노인, 고학력 노인, 고소득 노인의 돌봄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주요 돌봄제공자 실태 분석결과, 모든 조사시점에서 가족원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여전히 노인 돌봄의 1차 책임을 가족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공공서비스 이용률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국가의 공식 돌봄서비스 제공 비율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노인, 도시거주 노인, 초고령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이 대체로 더 높았다. 그리고 고학력 노인의 경우 가족원 또는 비가족원의 비공식 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 고학력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높았고, 남성 노인의 경우 주간보호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여섯째, 시계열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2008년, 2014년, 2020년 세 시점의 돌봄자원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2008년 분석결과, 가족원이 아닌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온 집단은 고소득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였다. 2014년 분석결과를 보면 고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 ADL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독거노인이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2020년의 분석결과를 보면, ADL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독거노인, 치매 노인이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노인의 기능상태 및 돌봄자원 변화(종합)

연구내용		연구 분석결과 요약
기능상태 및 돌봄자원 변화	ADL/IADL	• 2008~2020년의 시간 변화에 따라 일정한 방향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이 기능제한 높음
	치매 유병률	• 전체 조사시점에서 약 2% 수준.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 치매 유병률 높음
	돌봄수급률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과 2020년 시점을 비교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돌봄수급률이 증가. 남성 노인, 도시지역 거주 노인, 초고령 노인, 고학력 노인, 고소득 노인의 돌봄수급률 높음
	주요 돌봄제공자	• 모든 조사시점에서 가족원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시간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등급신청률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4% 수준 유지. 여성 노인,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의 신청률 높음
	서비스 이용률	• 전체 조사시점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음. 여성 노인, 고학력 노인의 방문요양 이용률 높고, 남성 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률 높음
돌봄자원 선택 영향요인	2008년	• 지역사회 영향 없음. 고소득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가 가족원이 아닌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 높음
	2014년	• 지역사회 영향 고려한 다층분석 수행. 고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 ADL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독거노인이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 높음
	2020년	• 지역사회 영향 고려한 다층분석 수행. ADL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 독거노인, 치매 노인이 공식돌봄자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247.

7) 경제활동 및 여가중심 사회참여 변화

노인의 현재 경제활동 및 여가중심 사회참여율 및 향후 경제활동 및 여가중심 사회참여 희망률의 시계열 변화(그림 5) 참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세진 외, 2021).

첫째,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이후 등락을 보이나, 2014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활동 희망률은 2017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69세는 55.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54.5%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도 조사의 65~69세와 비교할 때, 2020년 조사에서 참여율과 희망률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출생 코호트 비교에서도 유사하다. 기존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마중물인 195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의 신규 노인 진입으로 향후 노인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여가중심 사회참여의 경우 참여 형태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종교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의 현재 참여율은 일부 감소하거나 답보상태를 보였다. 특히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건강한 노인이 적극적 여가활동을 한다는 기존 연구들(김민혜, 김주현, 2020)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여가중심 사회참여율은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2020년 급증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신규 노인층 진입에 의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욕구가 분출하여 나타난 결과인지는 향후 진행될 2023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할 때, 한국 노인은 평균 1.5개 내외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주로 경제활동, 친목단체활동, 종교활동과 같은 소득과 친목 중심의 사회참여를 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수준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이러한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노인의 현재 경제활동 및 여가중심 사회참여율 및 향후 희망률 시계열 변화

(단위: %)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323.

## 8) 삶의 만족도 변화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 추이([표 11] 참조)를 살펴보면(김세진 외, 2021), 2008년에는 분석 대상자의 평균값이 3.128이었으나, 2020년은 3.451로 소폭 상승하였다( $p < 0.001$ ). 즉, 2008년의 노인보다 2020년의 노인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를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세진 외, 2021).

첫째, 건강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분석 대상자의 평균값이 2.572였으나, 2020년은 3.340으로 상당히 높게 상승하였다( $p < 0.001$ ). 즉, 2008년의 노인보다 2020년의 노인의 경우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경제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분석 대상자의 평균값이 2.726이었으나, 2020년은 3.212로 건강상태 만족도만큼 높지는 않지만 역시 상당히 높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4년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2.516으로 2008년보다 하락하였다( $p < 0.001$ ). 셋째,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분석 대상자의 평균값이 3.266이었으나, 2020년은 3.330으로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였다( $p < 0.001$ ). 즉, 2008년의 노인보다 2020년의 노인이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분석 대상자의 평균값이 3.836였으나, 2020년은 3.603으로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는 적은 수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하락하였다( $p < 0.001$ ). 즉, 2008년의 노인보다 2020년의 노인에게서 친구 및 지역사회 만족도가 떨어졌다.

[표 11]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구분 <sup>3)</sup>	조사 연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Adjusted Wald test <sup>1)</sup>
삶의 만족도 전체	2008	10,700	3.128	0.010	570.01***
	2020	9,930	3.451	0.0085	
건강 만족도	2008	10,737	2.572	0.012	2080.96***
	2020	9,930	3.340	0.010	
경제 만족도	2008	10,756	2.726	0.011	1086.67***
	2014	10,279	2.516	0.010	
	2020	9,930	3.212	0.010	
사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2008	10,707	3.266	0.010	17.75***
	2020	9,930	3.330	0.010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2008	7,840	3.836	0.008	358.34***
	2020	9,930	3.603	0.009	

주: 1)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횡단 가중치(샘플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65세 이상 본인 응답자만 해당함. 각 항목별 결측값에 따라 관찰값이 달라짐.

3) 기존 노인실태조사에서의 만족도 문항은 ① 매우 만족한다~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게 역코딩을 실시함.

자료: 김세진 외(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p.387.

### 3. 맺음말

노년 삶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노인은 외국 노인과 달리 나이가 들어 갈수록 행복감이 떨어져 행복지수가 세계 하위 수준이다. 노후에 직면하는 네 가지 고통(四重苦) 즉,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등을 완화해주는 노인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의 규모가 증대해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해 노년 삶의 특성 또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고학력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비노인층인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후반기 노인(80대 이상)을 특화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신체적 기능도 저하되고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운 80대 이후 노인들이 고독과 무위로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들의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아울러 저하된 제반 삶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단독가구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책 대응을 해가는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노년기의 거주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독거나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 노인인 베이비부머의 대부분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독거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부가구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건강한 부부가구를 위한 활기차고 역동적 노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공식적 지지체계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령·교육 수준 등에 상관없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 노인특화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개발·공급해야 하며, 그동안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여겨진 노령인구에 대한 디지털기회 보급 확대와 디지털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노년층에게 건강, 방역 등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보화가 어려운 집단, 즉 90세 이상 고령 노인, 인지장애 노인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로 불안, 염려,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노인이 많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정신건강은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문제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개입과 고령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모두 고려해야 한다(남궁은하, 2021).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모두 요구된다.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독립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즉 고령의 단독가구, 도시지역의 노인일자리 개발,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 삶의 질이 열악한 여성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클 것이다. 반면에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수적이며, 활기찬 노년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정경희 외, 2016). 따라서 다양화되고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노인복지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과 더불어 시민사회와 기업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노인 개개인과 더불어 가족과 공공제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려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가족, 지역사회, 기업이 수시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 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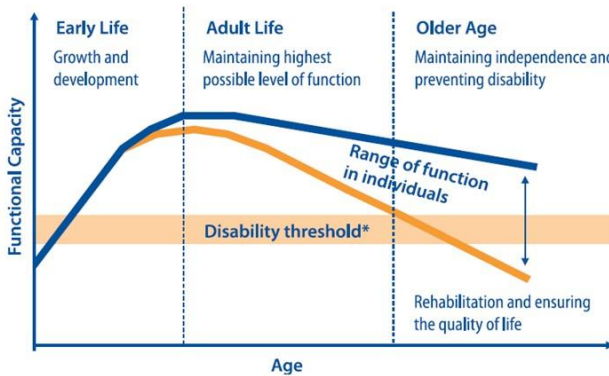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2021).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경제현안분석 제103호).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민혜, 김주현(2020). 한국 고령자의 여가 활동 트렌드: 국민여가활동조사 7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5), pp.871~894.
-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궁은하(2021).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생활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2021년 10월 통권 제300호), pp.72~85.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OECD Health Statistics*.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2021 자살예방백서*.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안수란, 오옥찬, 이상정, 이윤경(2022).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03호 pp.56~71.
- 유태균, 반정호(2012).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349~372.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연구보고서 2016-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21).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전국기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에서 2022. 6. 30. 인출.
- 통계청(2020). *2020년 고령자 통계*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국민 삶의 질 2021*.

## 능동적 노화와 교회의 역할

김규찬 교수  
(강릉원주대 다문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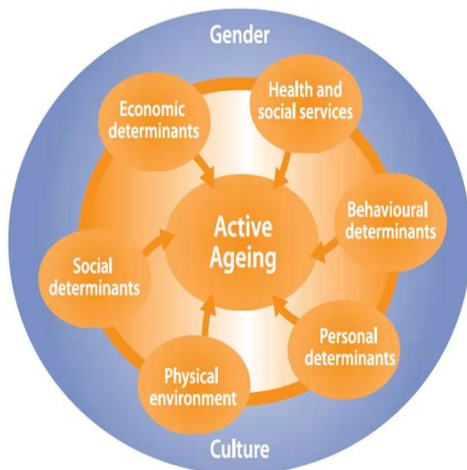
### ‘능동적 노화(active ageing)’란?



- 삶의 질을 위해 생애 후반기까지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유지
- 의존상태 지연 or 완화
- 노년기 삶의 질은 노년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누적적으로 결정
- 동일하지 않은 노화 (unequal ageing)

Source: WHO(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p.14

2



### ‘능동적 노화’의 요인들

-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
- 개인적 & 행동적 요인
- 물리적 환경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젠더, 문화적 요인

Source: WHO(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p.19

3



Source: WHO(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p.45

## UN ‘능동적 노화’를 위한 원칙들

- 참여(participation)  
: 노동시장 참여, 사회/문화/정치적 참여 활동
- 건강(health)  
: 정신, 신체, 사회적 기능
- 보장(security)  
: 소득보장, 물리적 안전

4

## ‘능동적 노화’의 목표

- 조기 사망(premature deaths) 감소
- 노년기 만성질환 감소
- 노년기 의료, 돌봄 비용 감소
- 노년기 삶의 질 향상
- 노년기에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유급 노동 포함), 정치적 참여 지속/강화
- 노년기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유지/확대

5



## ‘능동적 노화’의 접근방식

\* 이하 내용은 Alan Walker의 2014년 SPA Conference 발표문에서 일부 발췌

- 과거, 현재의 모든 나의 삶의 방식은 노년기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줌: 노년기 진입 전에 전부터 잘하자!
-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의 유지와 회복
-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전략
- 예방(prevention)과 권한/능력 강화(empowerment) 관점 강조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Aim high!

6

## ‘능동적 노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전략(1)

- 임신, 영아기
  - 임신 전/후기 건강, 안전, 휴식과 회복
- 유아기
  - 성장(노화 포함)과 건강에 대한 조기 교육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출발 기회 부여!
- 학령기
  - ‘인생기회(life chances)’의 극대화
  - 평생 교육에 대한 준비
  - 노화 및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이해

7

## ‘능동적 노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전략(2)

- **근로연령기**
  -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능동적인 참여
  - 은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준비
- **인생 후반기**
  - 건강과 자립성(autonomy) 유지: 기술/장비를 통한 의존 예방
  - 새로운 활동의 시작
  - 학습의 지속
  - 지역사회 참여 기회 갖기

8

## ‘능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국가의 역할

- 건강 보장
- 소득 보장
- 돌봄
- 문화적으로 연령주의(ageism)에 저항
- 생애 어느 시기에도 더 나은 삶의 기회와 전망은 계속되어야 한다!

9

## ‘능동적 노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 풍부한 물리적 자원(건물, 차량, 주차장, 미디어, etc),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
- 참여: 역할 상실의 시기에 역할, 가치, 존엄성 부여
- 건강: 신체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차원 등 전인적 건강
- 교육: 수준 높은 평생 학습 활동(인문학, 어학 등)
- 여가/문화: 건강하고 질 높은 여가활동
- 자원봉사: 노노케어 등
- 선교

10

## [참고]보건복지부(202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여가/문화활동은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으며, 취미오락활동이 49.8%, 사회 및 기타활동이 44.4%로 높음.
-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25.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0.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 38.3%로 가장 많으며, 산책 31.9%, 기타 관광활동 12.7%, 등산 11.8% 등임.
-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9.0시간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2.9%이며, 월평균 6.3시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노인의 40.2%는 종교가 없으며, 종교가 있는 노인 중 10.9%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음.

11

## 연결과 존엄을 위한 노인의 돌봄 ‘주고받기’

신하영 교수

(세명대 교양대학,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 들어가며: 모두가 돌봄을 말하지만, 돌보지 않는 시대

2022년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2021년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돌봄, 돌봄노동은 ‘뜨거운 감자’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초등돌봄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전 정부는 범부처 돌봄통합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한 바 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에 대한 이슈 역시 여러 실태가 보고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제공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선정국에서 공정이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던 돌봄의 책무, 돌봄의 주체와 관련한 이야기는 서서히 관심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돌봄은 그 자체로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연결의 말이고 생각이다. 반면 공정은 어떠한가. 부모찬스도 쓰지 말고, 누군가를 표절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자신만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 혼자서 오롯이 성취해낸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끝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대선정국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정의 줄다리기였다.

이처럼 개인주의/능력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충돌하는 때가 언제 또 있었는가 싶다. 이 시점에서 노인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뻔 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노인과 돌봄이 만나는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care for elders)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제문에서는 때로는 강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공정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노인의 삶에서 생각보다 더 역동적인 행위의 연쇄작용을 그 중심에 있는 돌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노인의 돌봄을 통한 연결

첫 번째로 노인의 돌봄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것은 노인의 돌봄(care of elders)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을 위한 돌봄 외에도 노인이 제공하는, 노인에 의한 돌봄(care by elders)이다. 한국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주체의 절대량이 중고령층 이상의 무급/유급 여성노동자임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중첩된 돌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돕는 보조 혹은 주양육자로 함께하는 조부모의 경우 보편적으로 중고령 여성이 돌봄을 제공한다.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 혹은 파트너 그리고 노부모도 이들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들 고령층 여성은 이렇게 ‘노노(老老)케어’라고 불릴 정도로 돌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 완전히 사회화되지 못한 돌봄의 영역의 험거운 곳, 촘촘한 안전망이 채 완성되지 않은 그 빈틈을 연결하는 곳에 이들의 돌봄이 존재한다.

청장년이던 시절에는 자신의 자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다가 중고령층이 되어서는 손자녀 혹은 노부모,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 여성노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여성노인은

가장 많이 돌보면서도, 가장 적게 돌봄을 받는 성별/연령집단<sup>1)</sup>이다. 2021년 기준으로 돌봄노동을 시행하는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모돌봄을 하고 있는 고령여성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수행능력상 제한이 큰 노인을 1주 평균 약 33~40시간 돌보며, 높은 수준의 돌봄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주야간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등)를 경험하면서 고령여성이 더 많은 시간 배우자, 부모님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돌봄을 이야기하면 ‘독거노인’, ‘노인의 빈곤’을 떠올린다. 그런데 한국사회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들의 수가 900만에 육박한다(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853만 7천명). 노인을 단일한 단어와 개념으로 규정짓고 이들은 다른 세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그친다면, 노인(여성은 물론 남성노인을 포함해서)이 제공하는 돌봄은 비가시화 된다. 노인은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쓸모 있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채 돌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과 태권도학원 봉고차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가방을 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님들의 모습이 이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동력으로 인정받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경력단절의 위기에 있는 여성의 육아를 분담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높고 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노인의 비공식적 돌봄, 청장년 생산인구와 어린 비생산 인구를 연결하는 노인 비생산인구의 돌봄 제공을 노인에 의한 돌봄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소외되고 곤란에 처한 이들에게 어떤 보호와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할 때다.

### 돌봄을 받는 노인은 존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신체적 한계 등을 이유로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과연 노인만 그럴까. 왜 노인이 되기 전에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전히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의 의존성이 별스럽게 다루어질까. 커테이(Eva Kittay)는 인간이 경험하는 불가피한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파생된 의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근대적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독립된 자아’라는 것은 사실 환상에 가까운 가정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즉 인간의 실존은 상호의존성을 가진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 혹은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를 통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진다.<sup>3)</sup>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이 ‘온전한 시민’으로 존엄하다는 것은 자명하나, 여러 제도와 통념들은 이를 의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많은 언론의 보도는 젊은 생산인구가 ‘떠안아야 할’ 노인 부양을 부담, 미래세대에게 주어지는 짐으로 묘사한다. 한편, 한국사회의 복지체계, 특히 특정한 수요를 가진 이들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어떤 ‘포기 혹은 체념’을 요구한다.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보호서비스 등 국가의 보호와 보장을 제공받을 때 ‘부양자가 없음’, ‘경제적 능력 없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자신의 ‘없음’ 혹은 ‘불(가)능’을 문서로, 구두로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은

1)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돌봄과 함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남성 노인의 경우 2020년 기준 급여 미이용자의 46%가 배우자와 함께 동거했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1.2%가 배우자와 동거했다. 여성의 경우는 미이용자 중 26.7%, 이용자의 37.3%가 혼자 지냈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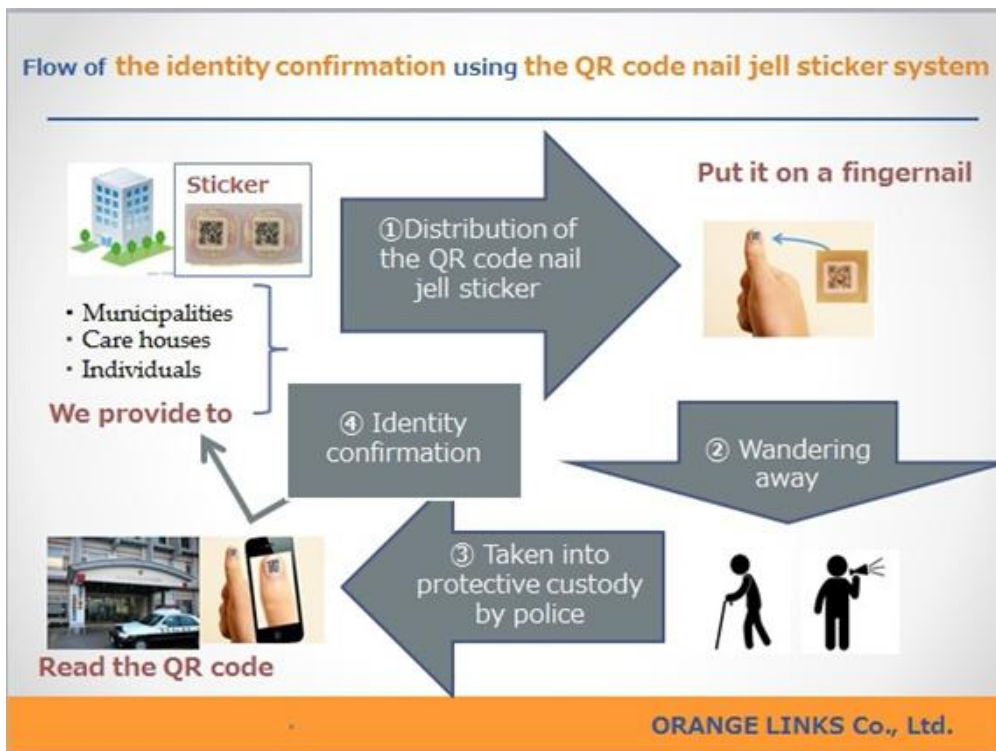
2) 출처: 위와 같음.

3) 출처: 정지은. (2021). 민간부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돌봄 서비스제공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109(2). 167-207.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장애인/ 유급노동을 제공하는/ 성인’ 만큼 존엄하다고 스스로를 감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능론적 돌봄체계는 노인의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촘촘한 의료체계와 적절한 생활보장으로 노인의 생존의 조건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을 위한 돌봄(care for elders)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존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다. 어쩌면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언적인 수사로 노인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하지만 돌봄의 실천과정, 돌봄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만들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존엄하게 여기고, 스스로 존엄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관련된 사례로,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디지털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복지기술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일본에서 개발된 치매노인의 실종을 방지하는 위치기반기술 인식칩의 경우, 기능적 접근과 더불어 노인의 사생활, 존엄성을 고려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인식칩은 치매노인의 엄지발톱에 인식칩을 부착하여 치매 사실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한다. 양말 속이나, 장갑 속 손톱에 인식 칩을 부착하여 분실 위험을 줄이려는 효과도 있지만, 아픈 몸(혹은 정신)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점을 가진다.



일본 오렌지 링크社가 개발한 치매노인 실종 방지용 LBS 인식칩

## 나가며: 우리는 연결됨으로써 존엄할 수 있다

본 발제문은 노인이 다른 세대와 돌봄을 주고받음으로써 연결되고,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앞서 이론적 토대를 두고 제시한 것처럼,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재양식은 그 자체로 돌봄의 주고받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기’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 민폐를 끼치는 연습을 해야 한다.”<sup>4)</sup> 다른 이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뿐 아니라, 나의 결핍도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내어 보이고, 도움과 돌봄을 활발히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나의 성취와 이익, 나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 말고 다른 이의 눈이 향하는 곳, 지금 이 시대의 노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됨’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sup>5)</sup>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에게 민폐를 끼치고, 다른 이의 민폐를 잘 살피기에 합당하게 지음 받은 것도 같다.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매우 특별한 형태를 지닌다. 어떤 영장류보다도 옆으로 길게 찢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장 넓은 흰자위, 즉 공막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간은 공막이 흰색인 유일한 종이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그리고 개, 고양이 등은 동공과 공막의 구별이 흐릿해 눈 전체가 거의 같은 색으로 보인다. 왜 인간은 눈동자에 흰자위를 지니고 있는 걸까. 이는 협력을 통한 공동 생존을 위해서다. 다른 영장류의 전략과는 달리 인간은 사냥할 때 시선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전략을 택했다. 흰색의 공막 덕분에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흰자위가 많으면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느 곳의 사냥감을 노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흰자위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 즉, 인간에게 있어 눈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인 셈이다.<sup>6)</sup> 우리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외에, 다른 이의 흰 자위가 머무는 곳을 살피며 그곳에 돌봄이 머물 수 있지 않을까.

4) 출처: 누구나 돌봄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법 - 일다 -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9407%C2%A7ion=sc5](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9407%C2%A7ion=sc5)

5)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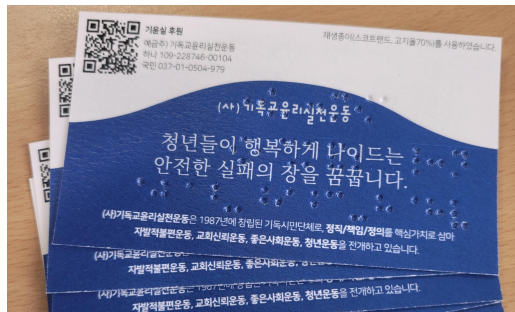
6) 출처: “왜 인간 눈에만 흰자위가 있다 [사이언스타임즈 라운지] 타인의 시선을 쉽게 읽기 위한 소통 전략“ 2017.11.04. 기사.

##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최주리 간사

(기윤실)

### 1. 들어가며



기윤실의 명함 뒷면에는 각 활동가들이 기윤실 운동을 통해 꿈꾸는 것을 적는다. 내 명함의 뒷면에는 ‘청년들이 행복하게 나이들 수 있는 안전한 실패의 장을 꿈꿉니다.’라고 쓰여 있다. 기윤실 청년센터WAY와 청년운동본부의 담당간사로서 나의 기윤실 활동은 주로 청년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러나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내 주된 관심사이다. 누구나 청년이 될 것이고 청년이고 청년이었던 것처럼,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고 노인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열정이나 패기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청년들이 나약해서가 아님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체념과 무기력은 희망없음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그 희망은 청년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분야 활동가이자 청년인 활동가로서 노년의 삶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은 나의 외할머니로 인해서였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과 함께 상경하게 되어 1년여 간 외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던 외할머니는 나이가 들자 거동이 불편해지시게 되었고 주로 집안에서 지내셨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며 집안일, 화단 가꾸기, 교회 활동, 이웃과 친척들을 만나고 돌보기 등을 하셨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외할머니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활동은 TV보기였다. 평소 TV를 자주 보지 않던 나는 문득 내 노년의 삶도 궁금해졌다.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명함에 쓰여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나이들 수 있을까?

### 2.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이번 발제에서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한다거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의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 행복하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 개개인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한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돈, 사람, 놀거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돈: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는 구조]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족함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아껴도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회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을 보며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쉽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금부터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꾸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될 필요는 없다. 도쿄대 명예교수인 우에노 지즈코는 그의 책에서 "간병 없이 살겠다며 열심히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두뇌 체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간병이 필요해져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심하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사회, 장애가 있어도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sup>7)</sup>

단순히 정부나 기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에서 그치거나 관심을 꺼버린다면 내 삶과 미래를 대신 바꾸어주지 않는다. 기윤실과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거나, 우리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와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배려로운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약자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 [사람: 느슨한 네트워크]

영국에서 2002년부터 12년간 2년마다 1만여 명의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적 고립과 기억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기억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sup>8)</sup> 사회적 고립은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거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이며, 고령자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독거 고령자보다 동거 고령자가 더 높다고 한다.<sup>9)</sup>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혈연 중심의 깊고 끈끈한 관계구조가 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생활공간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공용 공간과 소셜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코리빙 하우스가 등장했다. 코리빙 하우스 '맹그로브'는 짧지만 잦은 스킴을 만들어서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함께 하고 싶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서로의 인적사항을 다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을 사용하며 원하는 만큼의 익명성을 누리는 문화에 만족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행복한 삶에 운명의 배우자나 영혼의 단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듯, 느슨한 공동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7) 우에노 지즈코, 2022,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동양북스, p212

8) Sanna Read, Adelina Comas-Herrera, Emily Grundy, (2020) Social Isolation and Memory Decline in Later-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ume 75, Issue 2, p367-376

9) 우에노 지즈코, 2022,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동양북스, p31

### [늘거리: 나 자신과 나의 즐거움을 아는 것]

‘논다’라고 하면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어떤 때에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취향과 취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많은 도전과 실패로 가득하다. 스스로의 취향을 잘 안다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도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진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쓸모없는 것을 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안다면 이 각박한 세상을 버텨낼 여유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건강이나 퇴직 등의 이유로 이전에 비해 효율과 생산성이 낮아지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그 시간들을 헛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용함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자체의 가치를 아는 노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전 인류가 불임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를 다루고 있다.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고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평온한 죽음’이라는 의미의 자살약 ‘콰이어투스(Quietus)’를 권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틀면 수시로 흘러나오는 콰이어투스의 광고를 보며 사람들은 희망없는 미래를 앞두고 더 이상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한다.

평소 이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좋아하던 나에게 이 영화는 그 어떤 다른 영화보다 현실적이고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회적 가치가 떨어져가는 나이든 사람에게 삶을 마감할 것을 종용하는 잔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수많은 고민과 공부 끝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기로 했다.

절망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내가 속한 한 평의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그 작은 한 평들이 모여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바라게 되었다. 기윤실의 청년운동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미래를 바꾸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늘 그랬듯이.